

존 오스왈트 박사, 출애굽기, 세션 16, 출애굽기 35-40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Dr. John Oswalt와 출애굽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16회기, 출애굽기 35-40장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이곳에서 뵈게 되어 반갑고 반갑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우리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당신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에 다시 한번 압도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전 세계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감히 성경을 읽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불구가 된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당신을 알고자 하는 그들의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한 기쁨과 놀라움을 다시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몇 달간 연구에 충실한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축복을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해하도록 도우시고,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의 선지자들이 도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도록 도와주시고, 그 후에는 그 말씀을 우리 자신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진실로 변화되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오늘이 이 시리즈의 마지막 밤입니다. 9월 두 번째 월요일 밤에 다시 시작할 예정인데, 무엇을 공부하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셔서 성경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공부할 것입니다.

나는 그 책에 내 인생의 상당 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지만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실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모든 세션에 참석해 주셨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밤 책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인 25~40장은 우리에게 탈출구가 필요한 가장 깊은 인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15장까지는 속박과 억압에서 벗어날 길이 필요하고, 16장부터 24장은 영적, 신학적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것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지시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이나 모세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필요를 스스로 채워야 하는데 그게 바로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장의 금송아지와 하나님의 언약 갱신의 실패로 인해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할지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 보고에 관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두 섹션을 비교하고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보고 그에 비추어 관심 있는 관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섹션을 비교하여 얻은 의견과 관찰 내용을 여기에 나열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유사합니까? 그것들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 두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을 안식일로 끝내고 두 번째 부분을 안식일로 시작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뭐라고요? 좋습니다. 둘 사이에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 반복할까요? 어-허, 응, 응.

왜 안식일은 마지막에 강조되었다가 다시 처음에 강조되었습니까? 우리는 성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응, 데일. 어쨌든 이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 우상 숭배가 조작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상이 상징하는 힘을 조작하기 위해 우상을 만듭니다.

안식일은 조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자신을 돌보고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신뢰 행위입니다.

나는 이번 주의 일곱째 날에는 나 자신을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송아지의 양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금송아지는 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상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그만둬. 금송아지, 안식일, 그만 두세요.

예? 나는 또한 그 목록에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러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안식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함께 끝나고 그들이 돌아오면 그는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전에 당신에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내 마음 속에 해결되지 않은 질문입니다. 안식일이 십계명 중 하나의 의식법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나는 신약성경이 안식일을 아주 적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절기의 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고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와. 그래서 구약성서에서 그토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것이 왜 여기서 일종의 단서가 되는지가 나에게 흥미롭습니다. 그것이 신약성서에서 왜 언급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 추측은 이것이고, 나는 신약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지만 안식일 준수가 할례와 같이 되었다고 추측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두

가지 신체적 표시이며, 내 생각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신약성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서 돌아섰습니다.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내가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폴이 “아니요,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제 일주일의 첫날에 교회에 안식의 날이 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를 강조한다. 생성 과정이 끝났습니다.

주일은 구원을 강조합니다. 부활의 날, 성령이 오시는 날. 이것은 구약성서에서 발견되는 개념, 아이디어가 다른 것으로 변형되고 대체되는 또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 둘 사이에 있는 것에 의해 정확하게 형성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시도로서의 우상 숭배와 안식일에 “아니요, 사실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 아니요, 그것은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니, 그것은 상징이다.

야훼의 대담한 상징입니다. 그것은 조작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야훼의 상징이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상 숭배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작할 수 있는 형태로 우주의 힘을 배치하고, 내 손을 사용하여 나 자신의 주요 필요 사항으로 결정한 것을 충족시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것을 거부하는 날입니다. 좋아, 계속해서 노력하자. 35장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지난 주에 이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위해 백성들이 바쳐야 할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금 귀걸이, 시대. 그 귀걸이를 떼어서 나에게 주세요. 자, 여기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35장 4~9장.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모든 종류의 것들. 보라색 옷감, 향료, 숫양 가죽, 아카시아나무, 올리브유, 향료, 마노석, 보석. 거기에서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이돌을 만들 것인가? 이것들을 가져오세요.

성막을 만들 것인가?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가르쳐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매우 경제적입니다. 우상숭배는 너희가 권력을 얻기 위해 내 방식대로 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나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도 없으면 잊어버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줄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35장 5절에 네게 있는 것 중에서 여호와께 헌물을 취하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가져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목록을 알려 줍니다. 그거랑 32, 2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너희 아내가 차고 있는 금귀고리를 빼라. 이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했듯이 말 그대로 너희 아내와 아들딸이 차고 있는 금귀고리를 떼어 내는 것이다. 나에게 가져오세요.

그 구절과 방금 35장에서 읽은 구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자발적인. 기꺼이 모든 사람.

아론의 계명에는 자진성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해. 그것은 요구사항이지만, 자발적인 마음에서 동기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잊어버리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연구 전반에 걸쳐 이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해 왔지만 신약성경은 이 점에서 이교주의와 다릅니다. 외부 형태는 매우 유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드리는 번제와 히브리인이 드리는 번제는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교도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아 냈습니다. 나는 의식을 알아냈고, 이 의식을 수행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약성서는 그것이 무가치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희생은 당신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일 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진정한 신뢰가 없다면, 의식을 행하는 것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쓸모없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역겹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자원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10절부터 35:10까지 가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자는 다 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다 만들찌니라

이제 32:4와 비교해 보세요. 아니, 아니, 31:1 특히 32장 3절, 4절, 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귀걸이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는 그들이 건넨 것을 가져다가 도구를 사용하여 모자 모양의 우상을 주조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니라 아론은 이것을 보고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구절과 35장에서 읽은 구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아론이 다 했어요.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자들은 다 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다 만들되 35장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보라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을 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재능을 채워 주셨습니다. 34절까지 내려가서 죄송합니다. 35절입니다. 아니요, 제가 원하는 것은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주셨느니라 무엇?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능력. 그래서 Aaron은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서 닥치고 전문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서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것이 처음 두 사람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 나라에 이 사람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또 또 있느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분의 영으로 채우셨고, 그 일을 하신 것은 단지 장인의 기술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말하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여기 전문가가 있고 사람들은 구경꾼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능력이 있지만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어 그들을 훈련시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요구합니다.

자, 여기서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고, 공동체를 믿으시고, 참여를 믿으시며,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그분께 되돌려 드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오류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나는 당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물은 용서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할 것입니다. 선물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기 위해 신비롭고 강력한 말을 하는 것이 허락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다른가.

어딘가에 손이 있었다. 네, 읽어보세요. 네 그럼요.

전적으로. 예.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나에게 돌려주기 위해 주었고, 내가 그것을 나에게 돌려줄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고 견고하게 맺어진다고 말씀하신다.

예. 이는 권력 조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신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제임스 왕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물론 집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은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석 작업을 할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목수 일을 할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바느질 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알았어, 좋아.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 여기에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21절, 자원하는 자, 마음에 감동된 자마다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니라.

22절,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자원하는 자는 다. 흥미롭지 않나요? 29절, 26절, 자원하고 재능 있는 모든 여자가 여기서 염소를 뽑았습니다.

29절, 여호와의 모든 일을 위하여 자원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여자. 그렇다면 동기 부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구절에 따르면? 기꺼이 하는 마음. 그것은 내부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외부에서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내부로부터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락에 따른 기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자, 마음에 감동된 자마다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느니라.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금을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습니다. 은이나 놋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여호와께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기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와 헌금.

그 시각적인 것, 그들에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어떤 시각적인 것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룹 내에서 단결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물입니다.

그것은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흥미로웠다. 나는 유대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교회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회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회비로 지원됩니다. 연간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참석하려면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는 매우 놀랐습니다. 자유의지 헌금? 그리고 당신은 파산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중 일부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자유 의지가 자유 의지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크 트웨인이 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교회 예배에 갔다가 설교 후에 헌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설교가 시작된 지 10분 만에 접시가 나오면 50달러를 넣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시간 반 후에 돈이 돌아왔을 때 저는 20달러를 인출했습니다. 내가 왜 주는가? 왜냐면 내가 그래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축복하지 않겠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에 너무 감사해서 드릴까요? 당신과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지옥.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님의 피를 통해 무엇을 얻습니까? 천국.

그럼 우리는 참을 것인가? 우리 머리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36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대사입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오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숙련된 자도 다 그 하던 일을 버리고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이 더 많은 것을 가져오나이다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을 행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명령을 내렸고 그들은 진 전체에 이 말을 전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소에 바치는 제물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모든 목회자의 꿈.

아니, 아니,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접시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동기의 문제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늘의 감사에 감동되어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여기라고 말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찾고 싶습니까?

나는 그것을 여러 번 말했고 9월까지의 내가 다시 말하는 것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내 돈의 10%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의 돈의 90%를 맡기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좋습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완전히 만족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구는 방주 안의 가구, 죄송하지만 성막 내부의 가구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알리실 곳인 방주입니다. 그리고 등불과 상은 있지만 여기 아래까지는 분향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천막을 갖고 제단과 뜰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여기 아래까지는 물두멍이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성역세도 받고, 관유와 향도 여기서 받았어요. 내 생각에 이것들은 모두 특히 신권과 관련이 있어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여기서의 내부에서 외부로 훨씬 더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천막, 천막 안의 기구, 제단, 물두멍, 뜰,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중간에는 사용된 금속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내 직감은 이것들이 이 보고서나 이 지시사항의 논리적 순서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특히 사제 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의 씻는 데 쓰는 것이며 분향단과 성소의 세금과 관유와 향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기 위해 모든 것을 말하고 39장으로 갑니다. 먼저 38장 21절과 22절에는 성막 곧 언약의 율법의 성막을 위해 사용된 재료의 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 레위 사람의 지휘하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과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

이제 39장 32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회막인 성막의 모든 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42절과 23절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얻었는지 봅시다.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습니다. 39장 42절과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 공사를 살펴보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음을 보고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40:16년,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40:21 그런 다음 그는 궤를 성막 안으로 들여놓고 차폐 휘장을 걸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를 보호했습니다.

25절, 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켜느니라.
26절, 그는 회막 안 휘장 앞에 금 제단을 놓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살랐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는 성막 곧 회막 문 앞에 번제단을 놓고 그 위에 번제와 소제를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주장을 하려는 것 같나요? 그리고 요점은 무엇입니까? 왜 계속해서 또 다시? 어쩌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따라야 할 예일 수도 있습니다.

알았어, 응, 응. 그들은 금송아지를 가지고 무엇을 했나요? 아니면 금송아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방식으로 충족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하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가 있습니다. 맵소사,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지혜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아름답습니다.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맛이 좋은 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거나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없으므로 우리가 스스로 그 필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 때문에 세상은 오늘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는 그에 대한 또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나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나는 그들을 만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모르시거나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이 틀렸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은, 예, 예,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려고 하다가 끔찍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신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섹션을 통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도전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확실한 가운데 40일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충족시키기를 원하신다면, 계속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침내 말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 나는 무엇보다 당신의 길을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그것이 없다고 믿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기억하세요.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섭습니다.

물론 그것은 노년의 상징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신학교 학생들에 대해 조금 웃습니다. 캐런과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 꽤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내 여동생과 처남은 50년대 초반에 신학교에 다녔고 27피트 트레일러에서 살았습니다. 그 전에는 40년대 전쟁 중에 허버트 리빙스턴 박사는 주님께서 신학교에 가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세 자녀와 함께 27피트 트레일러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찬 공기가 내부에 응결되고 트레일러 벽에 고드름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납니다.

글쎄요, Karen과 저는 40피트짜리 트레일러에서 살았는데, 맵소사, 그런데 킹 사이즈 침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전자레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물론, 우리는 전자레인지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니다. 그러나 오늘날 젊은 부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자레인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으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니다. 자, 제가 말했듯이, 이것은 노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필요한 것을 손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이제 이 부분 전체를 통틀어 25-31절, 여기 35-40절의 지시 사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처음 25~31을 봤을 때 이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24장까지 모든 형태의 거룩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세 번만 나타나며, 그 후 25장과 40장 사이에는 거의 100번 나옵니다. 이제 내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본질인 자기 백성의 면전에서 살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신다면 왜 거룩함을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걸까요? 전에도 말했듯이, 거룩함은 그분의 독특함입니다. 그분의 본질에 있어서는 물론 그분의 성품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그분을 우리와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본질은 우리의 본질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도 우리의 성품을 초월합니다. 그는 다른 분이시며 거룩함은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일종의 결론은 제사장의 터번 앞에 있는 메달, 곧 주님께 대한 거룩함입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면, 왜 이것을 과장하지 않고 축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입니까? 그는 거룩함을 덜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확실히 죄를 덜 지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는 죄를 덜 가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거룩함을 덜 가질 수 없습니다.

또 뭐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별하라고 부르셨고, 그것이 바로 그가 거룩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 다른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해지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 놓다, 따로 떼어 놓다. 정확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그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너무 자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룰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다루실 수 있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고 싶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맙소사, 용광로가 문을 활짝 열고 건초더미에게 이리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건초더미인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 저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이해한다. 그러나 용광로의 열기를 식히지 않는 일을 네 안에서 행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용광로 속에서도 번영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는 하나님을 그분의 존재보다 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존재보다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스틸입니다.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로 끌어올리시기 위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사실이 주는 전율이 바로 그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그는 40장 15절에서 아론과 이야기하면서 "아니, 잊어버리기 전에 이것에 대해 한 가지 더 말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큰 비극이다.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에게 위험합니다. 나와 함께 살려면 그 사실을 알고 그 조건에 따라 살아야합니다. 이 장들에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0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아론의 큰 두 아들은 '응, 그냥 신이구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은 불이잖아요? 월마트는 이번 주에 특별 할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바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불이 제단에서 나와 그들을 태워 버렸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 오는 자는 거룩할지어다 한 것이 이것이니라 그리고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이 모든 실물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수건이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요점이 무엇입니까? 요점은 당신이 분명히 요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실물 수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돼지를 먹지 마세요. 왜? 그것은 당신을 거룩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어떻게? 괜찮아요.

먹지 마세요.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진다. 그날 남은 시간 동안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죽을 것이다. 기타 등등. 그러므로 그것은 성경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40장 15절로 돌아가십시오.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그들이 나를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십시오.

그들의 기름부음은 모든 세대에 걸쳐 계속될 제사장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직은 로마인들이 성전을 파괴한 서기 70년에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사실이 아닌가? 누가 히브리서에서 그 구절을 찾아보나요?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사실입니다. 나는 모세가 말했을 때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많은 주석가들은 40장 34절과 35절을 이 책의 절정으로 간주합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습니다.

모세는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이 책의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을까요? 일회성 이벤트입니다. 클라이맥스란 무엇인가? 클라이맥스는 비유적 표현으로 무엇을 암시하는가? 마침내 요점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향하고 있는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좋아요. 관계는 계속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 나는 독수리 날개 위에서 당신을 나 자신에게 낳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리고 또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 그렇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데려가셨다' 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모세는 이해했습니다.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십니다. 약 100년 전에 MYF에 있었던 우리 중 일부는 우리가 항상 아론 축복으로 모임을 마쳤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얼굴을 드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고 우리 얼굴이 그분의 영광으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것이 이 책의 클라이막스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행하실 모든 일의 절정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하지만 이 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 책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이 책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나는 그리스도와 성막에 관해 여러분과 빨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성소에 가려면 세 개의 휘장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자신을 식별한 첫 번째 마귀가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닥쳐라. 나는 너에게서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를 관계 안으로 초대하시는 분, 우리가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제단, 땅의 기초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첫 번째 휘장을 통과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제단입니다. 피가 없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노동.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가능하게 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실 수 없다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그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분. 등대. 그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탁자. 그분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향단.

그분은 아버지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는 것은 기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방주,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

색상은 흰색, 순결, 금은, 부, 청동, 안정, 보라색, 왕족, 주홍색, 생명, 파란색 및 평온입니다. 그분이 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기다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세 번의 세션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일은 우리가 인식한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피조물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 황소는 우주의 다산성과 힘을 상징합니다. 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금은 규정되고 요구됩니다.

전문가들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사람들은 단지 구경꾼일 뿐입니다. 그냥 관중.

요구 사항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성막과 비교할 때 그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베푸는 행위는 자발적이고 다양하므로 결국에는 자제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은 여러 수준에서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미적 요구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필요성. 참여의 필요성.

그리고 계속해서. 이에 비해 성막은 사람들의 실제 필요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훨씬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독서가 끝났습니다. 예. 흰색은 순수함입니다.

금과 은은 부입니다. 브론즈는 안정성입니다. 보라색은 왕족입니다.

스칼렛은 생명입니다. 파란색은 평온함입니다. 나는 론 스미스에게 오늘 저녁에 와서 당신을 보내기 전에 프랜시스 애스베리 협회에 관해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비호 아래 이 아름다운 건물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FAS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FAS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론.

이것은 Dr. John Oswalt와 출애굽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16회기, 출애굽기 35-40장입니다.